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요셉의 환란대처법>

3/3(주일) 설교 내용

창세기 37:18-28

1. 요셉은 여러가지 고난과 역울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모습은 의연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울한 일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떠합니까? 요셉과 나의 대처하는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요셉은 여러 역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지만,
자신에게 그런 상황을 제공한 사람(형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지, 요셉의 모습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에서는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뒤돌아 보았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에 대해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당시에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구나' 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목자들께서 먼저 나눔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질문이 두개이지만,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